

# “암환자 위해 꼭 필요? 오남용이 문제?”

## 美서 마리화나 자판기 논란 속에 등장

자판기로 유통 될 수 있는 품목, 반대로 유통되지 못하는 품목. 그 구분점은 해당 내용물이 위해성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다. 나라마다 편차는 있지만 공공성과 청소년 보호에 문제성이 있는 아이템들은 유통시키기 힘든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마리화나자판기가 합법적으로 유통된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제 미국에서 일어났다. 마리화나의 유통자체가 불법인 우리나라로 보면 아연실색할 일. “쫓쫓~ 말세야 말세~” 라며 비난받을 사안임에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실용’의 시각에서 내막을 보면 얘기가 틀려진다. 이 자판기는 암환자 처럼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용이다. 일반인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이 된다.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진정으로 고마운 자판기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실용’과 ‘편익’의 시각에서 자판기 존재 가치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일부 부작용?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긍정성에 비한다면 그다지 중요치 않는 사안이 아닐까? 마리화나 자판기는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될 아이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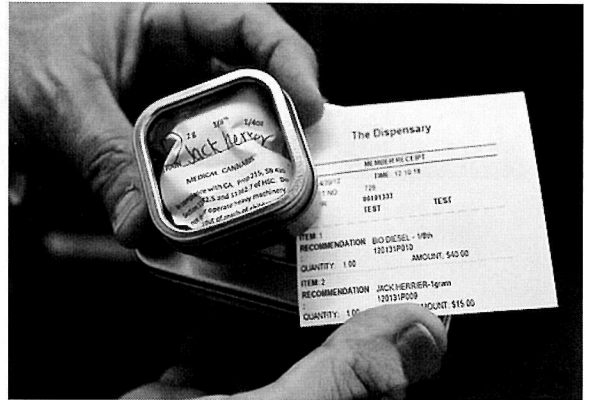


이 화제의 마리화나자판기가 등장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이다. LA위클리예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알리소 비예호에 있는 '디스펜스랩스'라는 자판기 업체는 마리화나 자판기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이 금기의 품목이 자동판매기로 유통될 수 있을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판매와 사용은 합법이지만 연방법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업체가 공개한 마리화나 자판기는 음료수나 과자자판기처럼 생겼지만 사용법은 훨씬 복잡하다.

일단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아무나 구입할 수 없다는 점이 차이이다. 철창 안에 보호된 자판기는 사전에 등록된 환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를 읽



해야만 접근할 수 있다. 이후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해야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 구매가 이뤄진 후 자판기는 다시 철망으로 둘러싸여진다. 지문 인식장치나 감시 카메라, 구매자 신분 추적 장치 등을 이용해 보안을 강화해준다.

현재 자판기 한대가 산타아나에 소재한 '더 디스펜서리 스토어'라는 상점에 설치돼있다.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들은 이 자판기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구매 기록도 철저히 관리된다.

이 자판기를 개발한 조 드로비오는 "환자들은 이 자판기를 통해 안전하고 보안된 환경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이 어떤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디스펜스랩스'는 마리화나 자판기를 월 1500~2000달러에 리스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1996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남용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고통 치료에 도움을 주고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는 미국의 실용 정신이 놀라울 뿐이다.

## 마리화나 [ marihuana ]

마취제로 사용되는 물질의 일종. 인도대마 또는 미국대마에는 환각발현수분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수분질을 칸나비노이드라고 총칭하며, 칸나비놀, 칸나비디올, 칸나비놀산, Δ1-3,4-trans-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등이 그것에 속한다. 대마를 건조한 것 또는 식물에서 얻어지는 수지상 침출수분을 마리화나하스히스, 차라스 등으로 부른다. 마리화나는 담배와 같이 흡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용법인데, 그것에 따라 다행감, 해방감, 졸음, 시간-공간감각의 상실, 환청, 환시 등의 정신작용과 동시에 심박수증대, 혈압상승, 구갈(口渴) 등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단속법에 의해 취급이 규제되고 있다.